

# 야구

6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 ‘역전의 명수’ 키움이나 ‘최소 역전패’ 두산이나

# 뒷심 vs 뒷문

〈키움〉

〈두산〉

키움, PS 6승 중 역전승 3회 장식  
두산, 정규시즌서 역전패 17회뿐  
이용찬·이현승 불펜진 합류 막강

“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포스트시즌(PS)을 치르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은 지난 경기를 돌이켜보며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팀은 상대에게 리드를 당하고 있어도 주눅 드는 법이 없었다. 놀라운 ‘업 셋’ 행보를 보이고 있는 키움은 준플레이오프(준PO)부터 PO까지

치른 7경기에서 6승(1패)를 거두며 그 중 3게임을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선취점을 내줘도, 5회까지 뒤지고 있어도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경기 마지막에는 기어코 승리를 거머쥐었다.  
‘역전의 명수’라 할 수 있는 키움은 22일부터 정규시즌 챔피언 두산 베어스와 대망의 한국시리즈(KS) 우승을 놓고 1차전을 치렀다. 최종 보스라 해도 무방한 두산에게도 키움의 뒷심이 발휘될 지 큰 관심이다.  
당연히 만만치 않은 상대다. 올해 두산은 정규시즌에서 역전패를 가장 적게

허용한 팀(17패)이다. 조쉬 린드블럼, 이영하, 세스 후랭코프 등 선발투수들의 구위가 막강해 초반에 많은 점수를 내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함덕주, 이형범, 윤명준 등 불펜 투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간계투 역할을 충실히 해줘 지키는 야구를 해냈다.  
KS에서는 뒷문이 더욱 더 강해질 전망이다. 정규시즌 선발로 활약한 이용찬이 불펜으로 합류해 힘을 더한다. 여기에 돌아온 베테랑 이현승까지 가세한다. 키움의 앞선 시리즈에서 상대한 LG 트윈스, SK 와이번스와 비교해도 확실히 불

펜 뎀스가 더 두꺼운 팀이다.  
기분 좋은 지표도 함께 한다. 두산은 올해 선취득점한 경기에서 승률 0.831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10개 구단 중 1위인 기록이다.  
PO까지 뒹집기로 재미를 본 키움이 마지막 시리즈에서 ‘수성’의 두산까지 격파할 수 있을 지 야구팬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다면, 장정석 감독이 미디어데이에서 밝힌 5차전 우승 시나리오도 충분히 흠에서 실현이 가능해진다.  
잠실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 휴스턴 vs 워싱턴 오늘 WS 1차전



## 게릿 콜 vs 맥스 슈어저 ML 최강 에이스 대격돌

아메리칸리그(AL) 챔피언 휴스턴 애스트로스 와 내셔널리그(NL) 챔피언 워싱턴 내셔널스가 격돌하는 월드시리즈(WS)가 23일(한국시간) 시작된다. 1·2·6·7차전은 휴스턴의 안방 미닛메이드파크, 3~5차전은 워싱턴의 홈구장 내셔널스파크에서 펼쳐진다. 양 팀 모두 강력한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어 흥미진진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휴스턴은 게릿 콜-저스틴 벨랜더-잭 그레인키의 삼각편대를 앞세운다. 워싱턴은 맥스 슈어저-스티븐 스트라스버그-패트릭 코빈-아니발 산체스의 판타스틱4로 맞선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각 리그 디비전시리즈(DS)와 챔피언십시리즈(CS)를 거치는 동안에는 워싱턴 선발진이 좀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다. 스트라스버그가 앞장섰다. 4경기(선발 3회)에서 3승, 평균자책점(ERA) 1.64를 기록했다. 슈어저(4경기)가 2승·ERA 1.80, 산체스(2경기)가 1승·ERA 0.71로 그 뒤를 받쳤다. 유일한 좌완 코빈은 다소 부진했다. 선발 2회를 포함해 5경기에서 1승2패, ERA 7.43을 찍었다. 0.2이닝 6실점에 그친 NL DS 3차전 구원등판의 영향이 크다. 나머지 4경기에선 제몫을 했다.

휴스턴에선 콜이 단연 돋보인다.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며 ERA 0.40의 압도적 피칭을 거듭했다. 반면 벨랜더(4경기)는 1승2패·ERA 3.70, 그레인키(3경기)는 2패·ERA 6.43으로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 때문에 탭파베이 레이스와 맞붙은 ALDS에서 자칫 탈락할 뻔했다.

워싱턴은 와일드카드 포스트시즌(PS)에 턱걸이했지만, LA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연파하고 창단 50년 만에 처음 WS에 오른 기세가 강점이다. 휴스턴은 2017년에 이은 2번째 우승 도전이다. 1차전 선발로 워싱턴은 슈어저, 휴스턴은 콜을 내세웠다.

워싱턴은 PS 10경기에서 팀 타율 0.243, 장타율 0.382(8홈런)를 기록했다. 반면 휴스턴은 11경기에서 팀 타율 0.208, 장타율 0.358로 정규시즌에 비하면 한참 답답했다. 그 대신 고비마다 홈런(14개)으로 활로를 찾았다. 도루를 1개도 시도하지 않은 워싱턴과 달리 휴스턴은 5개를 시도해 모두 성공했다. 마운드에서 박빙으로 간다면 수비력과 기동력에서 우세한 휴스턴이 대세를 장악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한국시리즈는 최고무대답게 시구로도 술한 역사를 낳았다. 1995년에는 김영삼 대통령(맨 왼쪽), 1998년에는 LA 다저스 소속이던 박찬호(왼쪽 2번째)가 시구자로 나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14년에는 이듬해 1군 합류를 준비 중이던 제10구단 KT의 마스코트인 ‘빅’과 ‘도리’(왼쪽 3번째)가 시구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해 1차전에선 임채청 소방장이 늑돌한 모습으로 시구를 해 박수갈채를 받



## 대통령부터 어린이까지…영광스러운 ‘KS 시구의 역사’

1994년 1차전 김영삼 첫 대통령 시구  
1998년 첫 현역선수로 박찬호 나서  
올시즌 KS 1차전선 임채청 소방장

프로야구 선수에게도 한국시리즈(KS) 마운드를 밟았다는 것 자체가 큰 자랑거리다. 팬들에게는 야구 역사에 기록되는 KS 시구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KS 1차전까지 총 154명이 KS 시구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시구자

로 나선 임채청 소방장은 지난 4월 고성 산불 때 1차 출동요원으로 인명구조에 큰 공을 세웠다.

1980년대 시구는 정치인이 주인공이었지만 1990년대는 연예인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타 종목 스타들이 많이 초청됐다. 이후 점차 야구팬과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이 시구를 하며 의미를 높였다.

KS 역대 첫 번째 시구자는 1982년 유흥수 충남도지사다. 당시 1차전은 홈팀 OB 베어스 연고지 대전에서 열렸다. 연예인 1호 시구는 지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김성령으로 1988년 6차전에서 미스코리아 진 자격으로 공을 던졌다.

1992년 3차전 시구는 감천초등학교 야구선수 김사율이 맡았다. 포랑포랑한 눈빛으로 힘차게 공을 던졌던 이 소년은 훗날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에서 활약했던 우완 투수 김사율이다. 최초의 초등학교생 시구였고, 최초의 시구자 출신 프로야구 선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1차전에 이어 1995년 1차전까지 2년 연속 KS 시구를 했다. 의원시절 국회의원 야구단을 이끌기는 등 야구사랑이 남달랐던 대통령이였다.

1998년 6차전 시구를 한 박찬호(당시 LA 다저스 선수)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현역 프로야구선수의 시구였다. KBO리그 은퇴

선수로는 2000년 7차전 시구를 한 선동열 전 감독이 최초였다. 2001년에는 1982년 3월 27일 KBO리그 원년 개막전에 태어난 야구팬이 공을 던졌다. 2008년 이소연 씨는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라 타이틀로 KS 무대에 초청됐다.

2012년 3차전 시구를 한 가수 선, 배우 정혜영은 최초의 부부 시구자로 기록됐다. 2014년 6차전에선 이듬해 1군 데뷔를 앞둔 KT의 마스코트 빅과 도리가 사상 첫 ‘캐릭터 시구자’의 영예를 안았다. 2017년 1차전은 김용평 대한야구협회장이 시구자로 발표됐지만 행사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시구자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KS는 야구원로, 가수, 시각장애인 등이 시구를 맡았다.

잠실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깜짝스타 이영준의 비밀무기 ‘커터 같은 포심’

〈키움〉

준PO·PO 4경기 2이닝 무안타 활약  
봉중근 해설위원 “구위 좋다” 칭찬

준플레이오프(준PO)와 PO를 순조롭게 통과하며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무대를 밟은 키움 히어로즈는 마치 신들린 듯한 불펜 운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핵심 계투요원인 조상우~김상수~오주원을 필두로 계투진 전원을 승부처에 짧게 투입하는 전략이 PO까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특히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계투요원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활용한 과감한 기용이 돋보였다. 좌투수 이영준(28)도 그 과정에서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

킨 인물이다. 단군대를 졸업하고 2014시즌 신인드래프트 2차 7라운드(전체 75번)에서 KT 위즈에 지명됐지만 방출의 아픔을 겪었던 과거는 잊은 지 오래다.

어렵사리 키움에 새 등지를 틀었지만 애초 신분은 육성선수였다. 2017시즌에 처음 1군 무대를 밟고도 2018시즌 2경기 등판에 그치며 다시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올해 정규시즌 29경기에서 1승1패1홀드, 평균자책점 2.97(33.1이닝 11자책점)의 성적을 거두며 가능성을 보여준 뒤 처음 밟은 포스트시즌(PS) 무대에서 존재감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준PO와 PO를 거치며 4경기(2이닝)에서 안타를 단 한 개도 허용하지 않으며 상대 좌타자를 확실히 틀



이영준

어막았다. 당연히 두산 베어스와 KS 엔트리에도 합류했다. 현역 시절 리그 정상급 좌투수로 활약한 KBSN스포츠 봉중근 해설위원도 “이영준의 구위가 정말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영준의 무기는 빠른 공이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최고구속이 149km까지 나온다. 평균구속도 144km다. 포심패스트볼(포심)그립을 잡고 던지는 빠른 공이 컷패스트볼

(커터)성으로 살짝 휘는 궤적을 그려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이영준은 22일 “휘는 쪽이 크진 않지만, 포심이 커터성으로 휘는 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컨트롤이 쉽지 않지만 큰 경기에선 그저 가운뎃볼 보고 세게 던질 뿐”이라고 밝혔다.

“나는 잘했던 적이 없다.” 이영준의 사전에 ‘자만’은 없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다. “처음에는 컨트롤이 없었다”고 돌아보며 “구속이 오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더 힘이 난다. 정말 어떻게 구속이 올랐는지 기억나진 않는데, 같은 좌투수인 오주원 선배에게 심호흡하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확실히 자신감이 커졌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활짝 웃었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